

옛날 신촌(新村里) 큰물머리¹⁾ 살던 김동지영감(金同知令監), 그 때 김동지영감이엔 아니하고 신촌(新村) 큰물머리 김씨사공(金氏沙工)이엔 흡데다.

김씨사공이 제주(濟州) 관원(官員)에서 우리 제주서 나는 소산지제물(所產之財物), 산(山)으로 초기(樵楫) 헤강(海角)으로 나는 우미²⁾ 전각(青角) 메역³⁾ 펜포⁴⁾ 서울 상감(上監)에 진상상납(進上納)을 바찌레 가옵데다.

전베독선[全船獨船]시겨 상시관(上試官)에 진상상납(進上納)을 바찌두고, 제주(濟州) 고양(故鄉)으로 돌아오자 훌 때, 서울 서대문밖[西大門外]을 나사난 날이 어둑어⁵⁾ 먹정⁶⁾ 뜬⁶⁾ 밤에 인간처(人間處)도 없는 무지공지(無主空地)에서 인간(人間)의 소리가 나옵데다.

김사공은 ‘피라곡절(必有曲折) 이상⁷⁾다. 인무초(人無處)훈디 이 밤의 무신 소릴런고?’ 만히 귀를 주어 들으니 아명허여도⁷⁾ 인간 소리. 숨을 촉촉이⁸⁾ 죽여가고 귀를 주어 들으니, 난디 엇인 어린 지집아이가⁸⁾ 목을 놓아 오는 소리 끌림 엊어서 김사공(金沙工)은 소리나는 딜 훈 발자국 두 발자국 가다 보니, 으식훈⁹⁾ 논두둑 알에서 서창히¹⁰⁾ 우는 소리가 더군¹¹⁾ 들려 옵데다.

우는 소릴 종가¹²⁾ 논두둑 알엘 보니 먹정⁶⁾ 뜬 야밤¹³⁾ 어떠훈 아기씨가 앗아 목을 놓아 우는 걸 보아,

“너는 구신(鬼神)이냐? 생인(生人)이냐? 구신이건 어서 천당(天堂)으로 올르곡 생인이건 나 눈 앞의 똑똑히 베우라.”

아기씨가 말을 헤워.

“어찌 구신(鬼神)이 날 배 있으리까? 나는 서울 서대문밖[西大門外] 허정승(許政丞)의 땅인디, 아바님 눈에 글리나고¹⁴⁾ 어머님 눈에 시찌나 우리 집 종하님[下女]을 빌어 가매예다¹⁵⁾ 나를 놓고 죽으라고 인무초(人無處)훈 이 논두둑 알에 오란¹⁶⁾ 놔 부니 나는 인(人)을 그려져¹⁷⁾ 모든 일이 칭원(稱冤)하고 설루와¹⁸⁾ 목을 놓고 대상통곡(大聲痛哭) 울엄수다.”¹⁹⁾

“하하, 이게 웬 말이냐.”

1) 큰물머리 : 조천면 신촌리(朝天面新村里)의 지명.

2) 우미 : 우무(天草).

3) 메역 : 미역.

4) 펜포 : 오징어.

5) 어둑어 : 어두워.

6) 먹정⁶⁾ : 먹장 같은.

7) 아명허여도 : 아무리 해도.

8) 지집아이 : 계집애.

9) 으식훈 : 어스름하고 깊숙한.

10) 서창히 : 서럽게.

11) 더군 : 더구나.

12) 종가 : 쫓아.

13) 야밤 : 야밤. 깊은 밤의 뜻.

14) 글리나고 : 눈에 거슬리는 말.

15) 가매예다 : 가마에다.

16) 오란 : 와.

17) 그려져 : 그리워져.

18) 설루와 : 서려워.

19) 울엄수다 : 울고 있습니다.

아기씨가 그 말 끝에,
“영감님아, 나를 살려줍서.”
베도포자락을 잔뜩 심어²⁰⁾,
“살 도례(道理)를 허여 줍서.”
에원(哀願)을 헌니,
“내 이 고양(故鄉) 사름이민 너를 드령 가 살리겠다마는 이 고을²¹⁾ 사름이 아니니 어찌 허민 조리.”²²⁾

“영감님은 어딨 영감님 뛰옵네까?”
“나는 제주(濟州) 사는 사름이노라.”
“제주 살아도 날 똑²³⁾ 드령 가 줍서.”
김사공은 기영호고픈²⁴⁾ 모음 벽볼이 셔도²⁵⁾ 그 땐 제조사름 육지(陸地) 못가고 육짓사름 제주 못오게 뛰여. 어찌 헤 도례를 몰라 궁금이 생각할 때,

“어서 그러거든 나한곡 고찌 가자.”
베진고달또를 오라 벳장 우[上]으로 올라 갈 때, 베옛 사공(沙工)이나 보카.²⁶⁾ 화장(火匠)이나 보카. 어느 땐 사름이나 보카. 베도폭자락에 아기씰 금추와 김사공 놓는²⁷⁾ 벳장 알로 들어갑데다.
“영자야, 화자(火匠)야, 닷을 감고 돛[帆]을 들라.”
깃발을 내거니, 제주(濟州)레 등등 듭데다. 연펭바당²⁸⁾ 실부름 나는 대로 배를 몰아²⁹⁾ 제주 물모를³⁰⁾ 근당(近當)한니 ‘관원(官員)이나 알민 엄중(嚴重) 처벌(處罰)이나 누리카’³¹⁾
벳장 안에 금추왔단 날이 정글아³²⁾ 개 고냉이³³⁾ 좀잘 때가 되여, 술짜기³⁴⁾ 돌아다네³⁵⁾ 상다락
[上樓]에 문을 잡아³⁶⁾ 아기씨를 질롭데다.³⁷⁾
훈 헤 두 헤 한는 것이 아기씨가 이구십팔(二九十八) 여래듭[十八]이 나니. 하도 고꼽 헤고³⁸⁾ 민망(憫惻)하여 상다락 남청문(南窓門)을 자쳐 보고 아기씨가 말을 한뒈.

“영감님아, 영감님아, 저 쇄[牛]를 물양 가는 건 무스것 헤레³⁹⁾ 가멍⁴⁰⁾ 저 머슴 등에 진 건 무스게⁴¹⁾ 뛰옵네까?”

20) 심어 : 잡아.

21) 고을 : 고을.

22) 조리 : 좋으리.

23) 똑 : 꼭.

24) 기영호고픈 : 그리 하고 싶은.

25) 벽볼이 셔도 : 백 번 있어도.

26) 보카 : 볼까.

27) 놓는 : 놓는.

28) 연펭바당 : 연펭(延坪)바다.

29) 몰아 : 몰아.

30) 물모를 : 수평선(水平線).

31) 누리카 : 내릴까.

32) 정글아 : 저물어.

33) 고냉이 : 고양이.

34) 술짜기 : 살짝.

35) 돌아다네 : 데려다가.

36) 잡아 : 달아. 잠가의 뜻.

37) 질롭데다 : 기롭디다.

38) 고꼽 헤고 : 갑갑하고.

39) 무스것 헤레 : 무엇 하려.

40) 가멍 : 가며.

41) 무스게 : 무엇이.

“우리 제주 사름은 악(惡)훈 일만 허여사 산다. 저건 떠렁쉐⁴²⁾를 물고 머슴 등에 진 건 잠대⁴³⁾가 됨다. 이 오늘날도 세경땅에⁴⁴⁾ 농수농업(農事農業) 지레 가는 거여.”

아기씨가 북창문(北窓門)을 올아놓고,

“호이 호이⁴⁵⁾ 진 솜비⁴⁶⁾ 주른⁴⁷⁾ 솜비 흐는 소린 무신 소리우파?”⁴⁸⁾

“그것도 우리 제중산(濟州산)은 악산(惡山)이라, 악훈 일만 허여사 사는 디라. 물망시리⁴⁹⁾ 아끈 테왁⁵⁰⁾ 아끈 비창⁵¹⁾을 거느려 대점복(大全鰻) 소점복 고동⁵²⁾ 미역 우미 흐는 헤녀(海女) 즘수(潛嫂)가 웨여진다.”

“남조(男子)우까? 여조(女子)우까?”

“여조가 흐는 일이여.”

“영감님아, 그러거든 나도 아끈 물망시리 한 물만시리 아끈 테왁 아끈 비창 물적삼⁵³⁾ 물소중 이⁵⁴⁾ 허여줍서. 나도 훈번 진 솜비 쉬곡 주른 솜비 쉬멍 허여 보쿠다.”⁵⁵⁾

“어서 걸랑 그리흐라.”

그 때에 김사공이 아끈 물망시리 일천기덕⁵⁶⁾을 다 출려주난⁵⁷⁾ 아기씨가 그날부떠 신촌(新村里) 큰물머리⁵⁸⁾ 성창(船艙) ?의 동(東)어귀로 들민 섯(西)어귀로 나고 섯어귀로 들민 동어귀로 나고 진솜비 주른 솜비 흐멍, 흐를 이틀 지나는 게 날이 갈수록 둘이 갈수록 아기씨가 더군다나 상해녀(上海女)가 웨여가, 대솜물⁵⁹⁾을 들민 큰물머리 성창(船艙)으로 나고 큰물 머리 성창으로 들민 바랑녀로 나고 바랑녀⁶⁰⁾로 들민 조천(朝天里) 새콧⁶¹⁾ 알로 나고 새콧알로 들민 원당(元堂)⁶²⁾ 알 [下]로 납데다.

대점복(大全鰻)도 일천근(一千斤) 소점복도 일천근, 대점복 쏘곱엔⁶³⁾ 은준지(銀眞珠)여, 금준지(金眞珠)여, 금준지 준지(眞珠) 준지가 나옵데다. 대점복 일천근에 준지는 닷말 닷웨[五斗五升] 칠세 오리⁶⁴⁾ 나옵데다.

김사공도 황천대(仰天大) 웃음이 웨고, 그 때사 허정승(許政丞)의 뜨님아기 김사공 ?라⁶⁵⁾ 말을 흐웨.

42) 떠렁쉐 : 소를 일컫는 말. 소를 모는 소리가 ‘어령떠렁’ 하는 데서 따온 말.

43) 잠대 : 쟁기.

44) 세경땅 : ‘세경’은 농신명(農神名).

45) 호이 : 해녀의 솜비질 소리.

46) 솜비 : 해녀가 전복 등을 따려고 물속으로 잠수하는 행위 또는 물 위로 올라온 때 급히 숨을 내쉬는 일.

47) 주른 : 짧은.

48) 소리우파 : 소리입니다?

49) 물망시리 : 해녀 기구(海女器具).

50) 테왁 : 해녀 기구. 바가지.

51) 비창 : 해녀가 작업을 할 때 전복, 소라 등을 떼어 일구는 기구.

52) 고동 : 소라.

53) 물적삼 : 해녀가 작업을 할 때 입는 상의.

54) 물소중이 : 해녀가 작업을 할 때 입는 하의

55) 보쿠다 : 보겠습니다.

56) 일천기덕 : 일천 기구. 모든 기구의 뜻.

57) 출려주난 : 차려주니.

58) 큰물머리 : 조천면 신촌리(朝天面新村里)의 지명.

59) 대솜물 : 신촌리(新村里) 앞 바다의 이름.

60) 바랑녀 : 신촌리 앞바다에 있는 바위 줄기.

61) 새콧 : 조천리(朝天里) 해변의 지명.

62) 원당(元堂) : 제주시 삼양리(三陽里)에 있는 악명(岳名).

63) 쏘곱엔 : 속에는.

64) 칠세 오리 : 되(升) 이하 양을 재는 단위. 섬-말-웨-세-리.

65) 김사공 ?라 : 김사공더리. ‘-더러’ 여격(與格).

“영감님아, 영감님아, 내 부모(父母) 몸에 탄생하여 백년이례(百年儀禮)를 지드린 것이 김사공에 인연(因緣)인가 흐옵네다.”

아기씨 식갑머리⁶⁶⁾ 으숯갑⁶⁷⁾ 갈라 다와 허정승 땐님아기 허씨(許氏) 아기씨가 김사공(金沙工) 흐고 백년이례(百年儀禮)를 맷입데다.

“대감님(大監一)아, 우리가 혼 금준지(金眞珠)나 은준지(銀眞珠)나 내 제주 조아 허여진 일 아니니, 이건 천운(天運)으로 도웬⁶⁸⁾ 일인가 흐옵네다. 이 물건을 우리가 기냥⁶⁹⁾ 생켜⁷⁰⁾ 먹을 수가 엇입네다. 우리 나라 상서월⁷¹⁾ 잉금님에 진상(進上)을 올리기 어쩝네까?”

“그러흐자. 조은 말이로다.”

전베독선[全船獨船] 잡아, 김사공은 상시관(上試官)에 준지(眞珠) 상납(上納)을 바찝데다.”

잉금에서는,

“이런 충실훈 벽성(百姓)이 어디 시랴.⁷²⁾ 이런 귀중(貴重)훈 물건을 나만 먹고 나만 씨저⁷³⁾ 욕심(慾心)훈 모음을 아니 먹어 나라를 생각하여 온 일이니 이런 기뜩(奇特)함이 어디 시리.”

김사공보고 말을 흐ಡ

“어떠훈 베실⁷⁴⁾이라도 조으니 너의 소원(所願)대로 일르라.”

김사공이 좁은 모음에,

큰 베실을 어찌 바랠 수 있으리까. 상감(上監)의 분부이니 거역(拒逆)할 수 엇어지고 소인(小人)이 원흐는 동지(同知) 베실이나 주옵소서.”

“이게 기뜩(奇特)훈 모음이고 솔직훈 모음이로다.”

어인 타인(御印打印) 놓고 금인 옥인(金印玉印) 노아 동지(同知) 베실을 받읍데다.

상시관(上試官)에서 허씨(許氏) 아기씨 허정승(許政丞)의 땐님은 구실동이작저구리⁷⁵⁾ 구실동이 착치매 붉은 구실 노랑 구실 흰 구실[白玉] 푸린 구실[青玉] 칠색 구실[七色玉]을 내여놓고 촘촘로 구실을 메여 은(銀)비녀여 놋[鑰]비녀여 금(金)비녀도 내여놓고 금가락주⁷⁶⁾ 은가락주 놋가락주 귀오개⁷⁷⁾ 상통진상⁷⁸⁾을 누리웁데다.

김대감은 동지(同知) 베실을 메여 김동지(金同知)가 웨웁고 아기씨는 부인(夫人) 부인 감부인(甘夫人) 도대부인(都大夫人) 숙절부인(守節夫人) 열녀부인(烈女婦人) 부인⁷⁹⁾ 척지⁷⁹⁾를 누리 와⁸⁰⁾ 부인 베실을 주옵데다.

김동지영감광 아기씨는 천상베필(天上配匹)을 무어 지나니 주식(子息)을 나는 것이 여조식(女子息)만 뚫 아옵성제[九兄弟] 나옵데다.

66) 식갑머리 : 세 가닥으로 땅은 머리.

67) 으숯갑 : 여섯 가락.

68) 도웬 : 도운.

69) 기냥 : 그대로.

70) 생켜 : 삼켜.

71) 상서월 : 상(上) 서울.

72) 시랴 : 있으랴.

73) 씨저 : 쓰고자.

74) 베실 : 벼슬.

75) 구실동이작저구리 : 구슬 끝동을 단 저고리.

76) 금가락주 : 금가락지. 지환(指環).

77) 귀오개 : 귀이개.

78) 상통진상 : 상통진상(上通進上)? 하사(下賜)했다는 말로 쓴 것.

79) 척지 : 체지(牒紙). 사령장(辭令狀).

80) 누리와 : 내리워.

뜰 아옵성젤 불러 앗져⁸¹⁾,

“느네⁸²⁾ 아바진 동지(同知) 베실로 난 상시관(上試官)에서 구실[玉]을 진상 누려시니 구실할망으로, 뜰 아옵성제에 줄이 벌을 테이니. 삼맹질(三名日) 기일 제소(忌日祭祀) 때에도 연양상고팡(靈筵上庫房)으로 상(床) 훈상을 바찌곡⁸³⁾ 큰굿엔 열두석시 족은 굿엔 으솟석시⁸⁴⁾ 앗인제 삼석, 헤 넘는 철갈이로 풍악(風樂)으로 나 간강(肝臟)을 풀려도라.”

뜰 아옵성제[九兄弟] 아옵^무을[九里]을 풀안 보니⁸⁵⁾ 웨손지(外孫子) 방상⁸⁶⁾ 줄이 벌어 동여국⁸⁷⁾이 나 츄지웹데다.

이 조상(祖上)은 나주(羅州) 김댁(金宅)의 뜰주손으로 줄이벌어 조손번성(子孫繁盛) 시겨줍던 이 조상이 뛰옵네다.

신정국 태추태로 일천간장(一千肝臟) 풀려 놓서.

— 濟州市 龍潭洞 男巫 安仕仁 口誦

옛날 신촌 큰물머리에 김동지영감이 살았었는데, 그때는 김동지영감이라 않고 신촌 큰물머리 김씨사공이라 합디다.

제주 관원에서 우리 제주 특산물을 진상할 때, 김씨사공이 산에서 나는 버섯, 바다에서 나는 우무 청각 미역 오징어를 서울 상감께 진상상납하려 갑니다.

한 배 가득 실어 서울에 진상상납을 시켜두고, 제주 고향으로 돌아오려 할 때, 서울 서대문 밖을 나서니 날이 어두워져 먹장같은 밤에 사람 사는 마을도 없는 무주공지인데 어디서 인간의 소리가 나옵디다. 사공은 ‘이것은 필유곡절 이상하다. 사람이 거처하는 곳이 보이지 않는데, 이 밤에 무슨 소리인고?’ 가만히 귀를 주어 들으니 아무래도 인간 소리입니다. 숨을 죽이고 귀를 주어 들으니, 난데없는 어린 계집아이가 목을 놓아 우는 소리임에 틀림없어, 김사공은 소리나는 데를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가다 보니, 어스름한 논두둑 아래서 서럽게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는 소리를 쫓아 논두둑 아래를 보니, 먹장같은 한 밤중에 어떤 아기씨가 앓아 목을 놓아 울고 있습디다.

“너는 귀신이냐? 생인이냐? 귀신이면 어서 천당으로 오르고 생인이면 나의 눈 앞에 똑똑히 모습을 보여라.”

아기씨가 말을 하되,

“어찌 귀신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나는 서울 서대문 밖 허정승의 딸인데, 부모님의 눈에 거슬리어 우리 집 하녀를 시켜 가마에 나를 넣고 인가 없는 이 논두둑 아래 와 놓고 가 버리니, 나는 사람이 그립고 모든 일이 칭원하고 서러워 목을 놓아 대성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하하, 이게 웬 말이냐.”

아기씨가 그 말 끝에.

81) 앗져 : 앗혀.

82) 느네 : 너희.

83) 바찌곡 : 바치고.

84) 으솟석시 : 여섯 석(席).

85) 풀안 보니 : 혼인시켜 보니.

86) 방상 : 친족(親族).

87) 동여국이 : 동의 국. 동좌면(東左面) 전부의 뜻.

“영감님아, 나를 살려주십시오.”
베도포자락을 잔뜩 잡아.
“살 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애원을 하니,
“내가 이 동네 사람이면 너를 데리고 가서 살리겠다마는, 이 고을 사람이 아니니 어찌하면 좋으리.”

“영감님은 어디 영감님 됩니까?”
“나는 제주 사는 사람이노라.”
“제주 살아도 나를 꼭 데리고 가 주십시오.”
김사공은 그렇게 하고픈 마음이 백 번 있어도, 그 땐 제주 사람 육지 못가고 육지 사람 제주 못 오게 되어 있어, 어찌 할 도리를 몰라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서 그러거든 나하고 같이 가자.”
베진고달또를 와 배 위로 올라갈 때, 배의 사공이나 볼까, 화장이나 볼까, 어느 다른 사람이 볼까 하여 베도포자락에 아기씨를 감추어 김사공이 자는 배 밑으로 들어갑니다.

“영자야, 화자야, 닻을 감고 뜻을 달아라.”
깃발을 내거니, 배는 제주를 향하여 둉둥 뜁디다. 연평바다 실바람이 부는 대로 배를 몰아 제주 수평선에 가까이 오니, ‘관원이나 알면 엄중 처벌이 내릴까?’ 하여 배 밑창 안에 감추었다가 날이 저물어 개 고양이가 잠잘 때 되니, 살짝 데려다가 상다락에 넣고 문을 닫아 아기씨를 기릅니다.

한 해 두 해 하는 것이 아기씨가 이구십팔 열 여덟이 되니, 너무 갑갑하고 민망하여 상다락 남창문을 젖혀 밖을 보고 나서 말을 하되,

“영감님아, 영감님아, 저 소를 몰고 가는 것은 무엇하러 가는 것이며, 저 머슴 등에 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제주 사람은 악한 일만 하여야 산다. 저건 소를 몰고 가는 것이고 머슴 등에 진 것은 쟁기다. 이런 날에는 밭에 농사농업 지으러 가는 것이다.”

아기씨가 북창문을 열어놓고,
“호이 호이 하며 긴 솜비 짧은 솜비 하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제주 산은 악산이라 악한 일만 하여야 사는 곳이다. 그래서 그 소리는 테왁 망사리 비창을 걸어지고 전복 소라 미역 우무를 캐는 해녀의 소리가 된다.”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가 하는 일이다.”
“염감님아, 그러거든 나도 망사리 테왁 비창 물적삼 물속곳을 해 주십시오. 나도 한 번 긴 솜비 쉬고 짧은 솜비 쉬면서 해 보겠습니다.”
“어서 그것은 그렇게 하라.”

김사공이 망사리를 비롯하여 모든 기구를 다 차려 주니, 아기씨가 그날부터 신촌 큰물머리 선창 가의 동쪽 어귀로 들어가서는 서쪽 어귀로 나오고, 서쪽 어귀로 들어가서는 동쪽 어귀로 나오고, 긴 솜비 짧은 솜비 하면서 하루 이틀 지나는 것이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아기씨가 점점 상해녀가 되어갑니다. 대삼물에 들어가면 큰물머리 선창으로 나오고, 큰물머리 선창으로 들어가면 바랑여로 나오고, 바랑여로 들어가면 조천 새콧알로 나오고, 새콧알로 들어가면 원당 아래로

나옵니다.

대전복도 일천근, 소전복도 일천근, 대전복 속에서는 은진주 금진주가 나옵니다. 대전복 일천근에 진주는 닷말 닷되 칠세 오리가 나옵니다.

김사공이 앙천대소하게 되고, 그제야 허정승 따님아기가 김사공에게 말을 하되,

“영감님아, 영감님아, 내가 부모 몸에서 탄생하여 백년의례를 기다린 것이 김사공에게 인연인가 합니다.”

허정승 따님아기씨가 세 가닥으로 땋은 머리 여섯 가닥으로 갈라 땋아 김사공하고 백년의례를 맺읍디다.

“대감님아, 우리가 얻은 금진주나 은진주나 나의 재주가 좋아 생긴 일이 아니고, 이것은 천운으로 된 일인가 합니다. 이 물건을 우리가 그냥 삼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라 서울 임금님에게 진상을 올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자. 좋은 말이다.”

전배독선을 잡아, 김사공은 서울에 진주를 바칩니다.

임금은,

“이런 충실한 백성이 어디 있으랴. 이런 귀중한 물건을 나만 먹고 나만 쓰고자 욕심있는 마음을 안 먹고, 나라를 생각하여 온 일이니 이런 기특함이 어디 있으리.”

김사공에게 말을 하되,

“어떠한 벼슬이라도 좋으니 너의 소원대로 이르라.”

김사공이 좁은 마음에,

“큰 벼슬을 어찌 바랄 수 있습니까. 상감의 분부이니 거역할 수 없고, 소인이 원하는 동지 벼슬이나 주십시오.”

“이것은 기특한 마음이고 솔직한 마음이다.”

옥쇄를 찍어 동지 벼슬을 내립니다.

상시관에서 허정승 따님아기에게는 구슬 단 저고리, 구슬 단 치마, 붉은 구슬, 노랑 구슬, 흰 구슬, 파란 구슬, 칠색 구슬을 내 놓고, 참실로 구슬을 꿰어 은비녀 놋비녀 금비녀 내어놓고, 금반지 은반지 놋반지 귀이개를 내려줍니다.

김사공은 동지 벼슬을 받아 김동지가 되고, 아기씨는 부인 부인 감부인 도대부인 숙절부인 열녀부인까지 첨지를 내려 부인 벼슬을 줍니다.

김동지 영감과 아기씨는 천정배필을 맺어 지내니 자식을 낳는 것이 여자식만 딸 아홉형제를 낳읍디다.

딸 아홉형제를 불러 앉혀서,

“너희 아버지는 서울에서 동지 벼슬을, 나에게는 구슬을 하사했으니 구슬할머니로 딸 아홉형제에게 줄이 뻗을 테니, 삼명일 기일제사 때에도 고방에 상 한 상을 바치고, 큰굿에는 열두석시 작은 굿에는 여섯석시 앉은제 삼석, 해 넘는 철갈이에는 풍악으로 나의 간장을 풀어달라.”

딸 아홉형제를 아홉 마을에 혼인시켜 보니, 외손자 친족이 줄이 뻗어 동좌면은 나의 차지가 되옵니다. 이 조상은 나주 김택의 딸 자손으로 줄이 뻗어 자손번성 시켜주던 조상입니다.